

## 정자(精子), 난자(卵子) '나고 판다'

결혼한 후 12년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42살 박모씨는 지난해 초 주위사람의 소개로 한 난자(卵子) 알선 업체를 찾았다. 박씨는 이곳에서 수백만원을 주고 자신과 혈액형이 같은 젊은 여자의 난자를 사 임신에 성공했다.

난자 생산에 문제가 있는 무배란증(無排卵症)으로 임신하지 못해 마음 고생이 심했다는 박씨는 난자 제공자가 자신과 비슷한 외모와 조건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박씨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이나 친·인척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해 출산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의 씨앗인 정자, 난자를 아무런 규제 없이 사고 파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전에는 공부를 잘하고 병원에 있는 의대생들이 많이 정자를 제공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점점 이를 꺼리면서 요즘에는 일반 대학생들이 10만~20만원을 받고 개인이나 알선업체에 주는 경우가 많다.

난자의 매매가는 보통 400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일부 젊은 여성들이 학비나 용돈 등을 벌기위해 돈을 받고 불임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초 난자를 제공한 22살 김모씨는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난자를 제공해 등록금을

해결했다"면서 "불임부부에게 기쁨을 줘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인공수정의 보편화, 즉 섹스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인터넷에 '신장 170cm, 금발에 푸른 눈, 아이큐 140의 난자를 판다'는 광고가 등장할 정도이다.

물론 이 광고는 아직 외국의 얘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광고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자와 난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를 알선하는 업체까지 생겨났다. 정자는 난자보다는 싸지만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자는 상당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를 통해 비밀리에 거래되는 거래대가는 난자의 경우 최고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워낙 은밀하게 거래돼 정확한 액수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난자는 구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유전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친·인척끼리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염색체 이상 증세로 난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31살 최모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미국에 사는 사촌 언니의 난자를 제공받아 임신한 뒤 최근 출산에 성공했다. 가족회의를 거쳐 무정자증(無精子症)인 남편대신 시동생의 정자를 받아 임신한 경우도 관련 학계에 보고되

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의 불임부부는 100만쌍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내부 지침을 통해 전국의 인공수태 의료기관은 연 1회 시술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대한산부인과 학회가 인준한 92개 의료기관에서 인공수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96년엔 8,694건, 97년엔 16,622건, 98년엔 13,578건의 인공수태 시술이 이뤄져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자, 난자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정자, 난자 거래가 자율화돼 있다. 아이비리그 소속 학생들의 난자가 2만달러 선에서, 정자는 8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된다. 반면에 영국은 정자, 난자의 매매를 금지하고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원칙적으로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명진숙 사무국장은 “정자와 난자를 사고 파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고 남아 선호나 인간 배아 연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으로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병원 여성 의학 연구소 남윤성 과장은 “매매를 금하거나 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져 불임 부부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정자, 난자 사고 팔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밀 실태 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공수태 시술용 정자, 난자의 유통 절차와 기준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  
●  
●  
●

불임 부부가  
100만쌍을 넘는  
현실에서  
인공수정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정자,  
난자가 일반 상품처럼  
마음대로 거래되는 것  
을 방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우수한  
정자, 난자만을 찾는  
등의 윤리적 문제에도  
질병에 대한 노출,  
인간배아 연구이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  
●  
●  
●  
●  
●


우수한 품종을 선택적으로 얻으려는 수 의사들의 노력에서 비롯된 인공수정이 불임부부에게 복음이 된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역시 인공수정에는 위험이 따른다.

정자, 난자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영국의 한 병원 실험 결과 인공수정 아이가 정상 임신 아이보다 정신지체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고 한다.

불임부부의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와 가족이 아니면 아무도 짐작하기 어렵다. 특히 대(代)기기의 유교적 관념이 아직도 뿌리깊은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의 파탄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불임 부부가 100만쌍을 넘는 현실에서 인공수정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정자, 난자가 일반 상품처럼 마음대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우수한 정자, 난자만을 찾는 등의 윤리적 문제에도 질병에 대한 노출, 인간배아 연구이용 가능성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불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주면서도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정자, 난자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광호 · KBS 해설위원